

삼위일체 대축일

기도서 P. 313 B해

- 제1독서(신명 4, 32-34, 39-40)
- 제2독서(로 마 8, 14-17)
- 복 음(마 비 28, 16-20)

# 숲 정 이

발행인    범    석    규  
 인쇄인    김    불    희  
 주    간    조    성    훈  
 편    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④2935)

□ 감 론



## 인간을 괴롭히는

## 하느님?

### 박 창 신 신부

대림 · 성탄 · 부활 · 성신강림으로 구원의 역사를 마무리 목상하고, 교회전례는 다시 중요한 신비를 따로 따로 목상하는 연중시기다.

이런 뜻에서 처음에 삼위일체 대축일이 위치함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잘 말하고 있다. 이러한 중대함에 비추어 우리들의 신앙자세는 어떠한가? 하느님이냐? 세상이냐? 물을 때 어느것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인가! 생활을 하느님과 관계없이 이끌어 인간노력으로만 간주하는 태도와 하느님을 귀찮게 생각하여 방황하는 신앙인이 있는가 하면 하느님을 무시위하며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하는 신앙인도 있다. 그런가하면 하느님을 인간지식의 대상으로 삼아 확인하고 증명하고 느껴봐야 믿는다고 한다.

초대에서부터 사도신경에 있는대로 전능하신 창조주 성부와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와 성령을 교회는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지식의 대상으로 설명하려는 유혹은 지금까지 지켰다. 그러나 삼위일체의 신비를 받아들이는 자세는 달라져야 하겠다. 이 신비는 인간지식의 대상도 육구도 아니라 인간구원을 위해 나타내 보이신 구세사의 신비다 먼저 구약에서 하느님은 당신을 “너희를 위하여 에집트를 어떻게 치셨는지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신명기 4장 34절, 제1독서)하며 에집트에서 해방시킬 야훼임을 구제적으로 말씀하신다.

신약의 예수는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분의 뜻을 따라 열심히 일하신분(요한 4장 34절)으로, 아버지의 뜻이 바로 인간을 괴롭게 하는 것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일생을 몸바치신 분이시다. 예수는 또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삼위일체는 단지 지식의 대상도, 인간을 괴롭히는 하느님도 아니다. 인간해방을 위해 보여주시 삼위일체이다. 그래서 예수의 업적을 통해 삼위일체를 보여주시 것이다(요한복음 14장 9절~11절, 17장 6절). 이 신비를 알고 마음의 문을 열어보는 신앙인이 되자.

그러면 신앙인은 먼저 예수를 받아들이고 현실점에서 무엇에서 해방되어야 하는가를 알자. 한국의 현실에서 역사적으로 예수께서 살아 계신다면, 무엇을 어떻게 말씀하실까? 천당만 가라고 하실까? 오히려, 백성 하나하나에게 관심을 쏟으면서 억압된 상태를 호소하실 것이다.

죄에 눌린 자신과 양심이 살지 못하는 사회, 불의가 성공하는 현실을 신앙인은 묵묵히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창세기만을 위해 있는 신앙인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느님의 일을 따라 행하는 신앙인은 바로 오늘 복음의말씀(마테오 28장 19절)을 실천하는 예수의 참 제자인 것이다. (여산 전주교회 주임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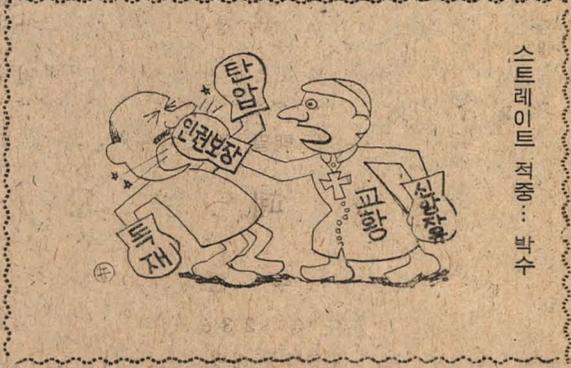
## 소비 절약

〈자원〉문제가 전제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모두들 “아껴쓰자”고 말들을 한다. 보도에 의하면, 전진국에서 더욱 〈아껴쓰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양이다. 하기야, 모자란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아껴쓰는 방법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기도 하다.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아껴쓰자.

지난 5월 마지막 주일 오후 4시 30분발 대전~전주간 고속버스는 지나칠 정도의 소비절약(?)을 하고 있었다.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인지 버스는 4시20분에 전주로 떠났고, 10분뒤인 4시 30분에도 있었다. 올라타고 보니 차는 새(新)차인데 햇볕을 막아줄 커튼이 없었다. 하얀 유리창을 비집고 들어온 햇살은 통로 건너편 좌석까지 무자비하게 쳐들어 왔다. 겨울철이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전날에 보니 안내장이 승차할 수 없다는 게 시가 되어 있다. 안내양마저 없으니 왜 커튼이 없느냐고 묻기도 어려웠다. 우리의 목숨을 책임진 운전기사에게 신경을 쓰게 할 수는 없었으니까. 사정이 있어서 커튼을 못 했을텐데, 하도 “소비절약”이라고 웨쳐대니 커튼을 하지 않은 일조차 소비절약처럼 느껴져 역겨운 마음이 들었다. 물론 이러한 소비절약은 없어야 한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국민 모두가 하나로 뭉쳐, 협심해야 된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안되는 모양이다. 어떤 신문이 고발한 고속도로 톨게이트 사진을 보니 온통 자가용차로 꽉 들어찼다. 평소에는 그렇지 않는데 주말이라서 그렇단다. 기를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소위 백성들 덕분에 돈푼이나 벌어서 자가용을 타는 사람들이인데, 이걸 너무나 한다는 생각이 든다. 없는 사람들은 절약하고 싶어도 절약할 것이 없을때가 너무나 많다. 선량한 백성들이 눈이 뒤집히면 곤란하기 그지없을 것이다.

## 숲 정 이 산책





# 소위 7·6사태에 대한 상황보고

## □ 우리는 왜 아직도 7·6사태를 거론하는가?

생각하면 소름이 끼쳐 다시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것이 작년에도 있었던 7·6사태이다. 그러나 그 결과가 너무나 흐지부지하게 오늘에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7·6사태를 거론하는 것이다. 7·6사태를 다시 거론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를 냉정하게 재조명해보고자 한다.

지난 5월 사제총회에서, 작년 7월에 집단폭행을 당한 박종상 신부는 “나는 7·6사태를 끝난 일로 볼 수 없어 나혼자의 힘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작년에도 애써주신 신부님들과 수녀님들, 평신도들의 노고를 더 이상 빌리지 않고 혼자 해결하겠습니다”라는 신상발언을 한 바 있다. 짧은 나이에 아직도 계단을 오르 내리자면 난간을 붙잡아야 하는 딱한 실정을 아는 사제들은 이 사건을 교구 정의평화 위원회에 일임했고, 교구 정평은 이를 상임 위원회와 총회에 신중히 검토하였다.

## □ 1978년 7월의 어려웠던 날들

5월...교구의 기쁜날, 사제서품식이 있던 날이었지만 사제들에 대한 당국의 미행 감시는 가톨릭 센타 옥상에서 평화적 시위를 불러 일으켰다. 뒤늦게 알려진 바에 의하면 서울에서 <민주주의 국민연합>을 발기하려 한다 하여 이를 사건에 봉쇄하기 위해서였다 한다.

6월...5월의 평화적 시위를 조사한다는 구실로 문정현 신부 등을 연행하기 위하여 파티마 성당 사제관에 난입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였다. 이때에 박종상 신부가 경찰에 의해 집단폭행을 당하고 밤늦게 길거리에 유기되었으며, 문정현·이수현 신부가 경찰에 연행되었다.

7월...일부 사제들과 전주 시내 사도회장단 연석회의. 전주 경찰서장의 박신부 문병

8월...사제 긴급총회. 경찰국장의 내방. 문정현·이수현 신부 교구청에 돌아옴.

10월...사제 긴급총회 계속. 정의평화 미사 봉헌. 평화적 가두 시위.

가두 시위를 저지하던 경찰들은 강덕행 신부를 경찰봉으로 구타하고 수녀들의 머리수건을 벗기는 만행을 저질렀다.

11월...정의평화 위원회 성명서 발표. 교구 사제단 단식에 돌입.

12월...중앙정보부 지부장 내방

13월...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긴급총회 갖고 성명서와 요구서, 호소문 채택. 전국 기도회. 철야 기도회

14월...중앙정보부 지부장 내방. 도지사와의 대화. 대진 황민성 주교님 위로 방문. 전국 정평이 사건경위 조사차 내방

15월...교구 평협, 관계 요리에 성명서와 요구서 전달

중앙정보부 지부장 내방. 안동 두봉 주교님 위로 방문

16일...경찰국 감찰계, 사건조사를 위해 이수현·문규현 신부의 증언 청취

17일...경찰국 감찰계, 모충조사. 경찰국장과의 대화. 월요 기도회

18일...원주 지학순 주교님과 서울 김수환 추기경 위로 방문. 평협, 주교단에 호소문 발송. 경찰국장 내방하여 사제단에 사과. 도지사 내방하여 사과. 전국 기도회에서 김추기경 단식 중지를 호소하고 사제단은 이를 받아들임 철야 기도회

## □ 그 뒤의 일들

교구 사제단은 사건의 마무리를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사건의 해결을 위임했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이 78년의 악몽같은 한 해를 넘겼다.

## □ 1979년 5월

5월 사제 총회에서 위임받은 교구 정평은 이 사건을 평화적으로 매듭짓기 위하여 도지사와의 면담을 추진했다. 그러나 면담이 약속된 5월22일, 오전에 도청에서는 면담의 어려움을 통고해왔다. 오후에라도 만날 수는 있지 않겠느냐는 정평측의 의견이 묵살되어 교구 정평도 대화 가능성의 문을 닫았다. 놀라운 일은 그 뒤에 벌어졌다. 22일 오후에도 시간을 낼 수 없었다면 도지사는 오후 6시 예고도 없이 교구장이신 주교님을 버락치기로 만나는 무례를 저지른 것이다.

이에 23일 정평 총회는 이 문제를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로 간주하고 정평 독자적인 대책을 결의했다.

7·6사태 1주년이 다되는 오늘의 첫걸음에서 볼 때, 당국은 “박신부를 구타한 경찰을 찾을 수 없다”는 불성실한 답변 내지는 책임자들이 바뀌어 그때의 일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성직자를 구타하고도 이런 태도를 취하는 당국임을 볼 때, 힘없어 잘못하고 사는 우직한 선의의 시민들은 어떻게 지내야 할지 생각해 보면 우리는 모골이 송연하다 못해 사투 슬퍼지기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민주주의를 한다는 법치국가인대도 말이다.

## □ 앞으로 우리의 태도

우리는 이에 그간의 상황을 이렇게 알리고, 우리의 태도를 밝히는 성명서 발표, 7·6사태 당시에 우리-사제단과 평협-의 요구를 재주장하는 서명운동, 인권강연회등을 통해 지속적인 의식계발 사업을 펼 것이다. 그리고 <모종의 행동>에 돌입할 것이다.

구타사실을 시인하고 그에 따른 조치와 구타한 당사자의 진정한 용서받음이 있기까지는 이 사건을 매듭짓고 용서할 수 없다는 한 사제(박종상 신부)의 울분에 관한 마디는 바로 우리 모두의 울분이다. 자신의 잘못을 모르고 용서를 빌지 않는 행위는 용서받을수 없는 것이 교회의 가르침이다. —전주교구 정의평화 위원회

□ 독사·뱀 물린데 백팔 백증치료 완

## 복 사 폐 차 장

대표 송 주 원(노래쵸)

전화 ③ 2365

전주시 금암동 태평보링(옆)

## ◆ 3년동안 뒷손을 보아드립니다 ◆

가정응급복약. 운수. 난방시설 및 수리전문. 보이라판매. 본사지역 호남출장소지 전우로 옮겨졌습니다.

## 한국 流 온수 온돌 공사

한 돌 암 (모예세)

(본사 지역 호남 출장소)

전주 ③ 4341 군산 ③ 3032 이리 8629

# 농촌 사목을 위한 성직자 세미나

—6. 18(월)~20(수), 가톨릭 센터



농촌문제들이 오늘날 우리 한국 현실에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다. 바꾸어 표현하면, 오늘날의 심각한 현실과 문제점들이 농촌사목의 당면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우리 전주교구는 많은 본당들이 농촌에 있는 농촌교구라는 데에서 농촌문제는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이에 교구 사목국과 교구 농민회는 오는 6월18일(월)부터 20일(수) 까지 농촌사목을 위한 성직자 세미나를 가톨릭 센터에서 갖는다. 세미나의 목적은 「농촌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농촌사목의 원활을 기하고 농민의 의식제발과 농촌사회 정의구현을 실현」키 위함인바, 3명의 사제와 4명의 농촌문제 전문 평신도가 강사로 나온다. 강의의 주제와 강사는 다음과 같다.

▲사회사목에 대한 성서의 가르침...서인석 신부(서강대 교수) ▲농촌사목의 실제...정호경 신부(안동교구 사목국장) ▲농촌문제의 본질...정연식(농민회 전국본부 교육부장) ▲농민회 활동 소개...최병숙(농민회 전국회장) ▲농협문제와 대책...이길재(농민회 전국 사무국장) ▲쌀생산비 보장운동...황연수(농민회 전국본부 조사부장) ▲사제의 역할과 농민활동...이중창 신부(농민회 전국 지도신부)

# 인권 강연회 및 김지하 문학의 밤

—군산 월명동과 정읍에서 가져



교구 정의평화 위원회가 후원하는 「인권 강연회및 김지하 문학의 밤」이 지난 5월21일 군산 월명동 본당에 이어, 6월4일에는 정읍 본당에서 있었다.

월명동 본당에서는 대학이 있는 도시답게 300여명이 넘는 젊은이들로 성당을 메웠으나, 정읍에서는 15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었다. 예정시간인 8시가 넘도록 성당을 찾는 발걸음은 뜸했으나 대조적으로 우리를 지켜주는 공부들이 성당 청문앞 가게 등지에 많이 나와 있어서 매우 든든(?) 했다.

군산의 모임에는 김지하 어머니가 참석했으나, 정읍에는 김지하의 아버지가 참석하여 눈길을 끌었다. 한편, 군산에서는 강연회 강사의 핑크로 문정현 신부가 핀치히터 노릇을 했으나, 정읍에서는 문학평론가인 김병걸(74년 11월 민주회복 국민회의 참여로 국립 경기 공전 교수직에서 해직됨) 선생이 「지하와 인권운동(문학과 종교판)」을, 박문식 신부가 특강을 했다.

정읍 강연회에서는 강사 풍년으로 백기완(백범사상 연구소장) 선생까지 참석했으나, 김지하 약력소개를 맡은 시인 고은(자유실천 문인협회장, 김지하 구출위원회 부위원장)씨의 꾸밈없고 알찬 상황설명으로 백기완씨는 강연대신 인사에 그치고 말았다. 강연회가 끝난뒤 정평위원들과 사제들은 새벽 2시까지 진지하게 의견을 나누었다.



사진재료 · 사진기계 · 도산매 칼라필림 ※교형 자매 우대  
**태 광 사**  
주 유 가에따노(영문)  
전주시 중앙동(우체국 옆)  
전화 ② 6346

◆경운기 · 분무기 · 전자동 탈곡기  
트랙터 · 각종 농기구일절 도산매  
**대동공업(주)전북총판**  
대표 오 승 엽(바오로)  
이리시 평화동 20번지  
☎ 9000, 9001, 9002, 9003번

주단 · 포목 혼수 이불감 도산매  
**유진상회**  
구시장 보화당 앞  
이리시 인화동 1가 84  
장 완 태(바오로)  
전화 : 5821

여름을 시원하게 하는 신일선풍기!  
신일선풍기는 (금, 은, 시계)  
**황 시 계 점 으 로**  
황 의 성(아오스딩)  
□전주시 서노송동 616 육교옆  
☎ ③ 3252

**漢文 강의**  
□ 한시 · 명언 · 한문 · 상식  
고사성어 · 3,000자 단기완성 지도  
□ 고급반 : 대학 · 논어 · 맹자 · 증용  
오후 2시, 8시  
□ 아동반 : 오후 4시 · 5시  
**전주 한문 학원 2-7071**  
<전주우체국 후문옆 · 진우라사 2층>

금 · 은 · 보석 · 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옆 교우집으로 오세요  
**미성당시계점**  
장 금 태(방지거)  
☎ 2-3301 (자택 2-8548)

소비자보호에 관심있는분 상담환영!  
**신세계 시계점(신장개업)**  
금 · 은 · 보석 · 각종시계  
<신용판매, 책임수리>  
①계(조직)판매환영 ②월부, 납품  
③교우, 학생 특별할인  
장소 : 동문사거리 전화 : ⑥6718  
장 상 준 드림

###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1. 인권강연회...11일<월> 오후 8시, 김재 성당에서 ※ 주최...김재천주교회, ※ 후원...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예고> 인권강연회 및 민족의 시인 김지하 문학의 밤...25일<월> 오후 8시, 전동성당에서
  2. 농촌사목을 위한 성직자 세미나...18일<화> 오후 1시~20일<수> (※ 3월 참조)
  3. 지성인을 위한 신앙강좌...14일<목> 오후 8시, 가톨릭 센터에서 ※ 주제...신은 죽었는가? (2부) ※ 강사...박도식 신부(철학박사, 광주 대전 신학대학 교수)
  4. 레지오 마리에 파티마의 모후 꼬미씨움...17일<일> 오후 2시, 전동성당에서 ※ 각 꾸리아 단장은 오전 11시까지 오세요. 상의할 일들이 있습니다
  5. 중고등 연합회 1차 회장단 회의...24일<일> 오전 10시, 가톨릭 센터에서(공문 참조)
  6. 완구 수집...교구 인성회에서, 시골 공소 어린이를 위해 6월20일까지 장난감을 수집합니다
- 교구인사(단체 지도신부 및 공소 사목 연구 위원회 보강)  
 ※ 마스크 위원회 담당...김준호 신부(면. 법석구 신부)  
 ※ 교리교사 연합회 간사...김준호 신부(면. 강덕행 신부)  
 ※ 공소사목 연구위...김병영·김종길·박창신·김동준(유입)·문규현(유입), 사목국장, 교육홍보실장
- 앰네스티 인권강연회...12일<화> 오후 8시 가톨릭센터에서 강사: 문동환 박사

**(중앙)**

전화 ③3511 3651 주임 신부 서웅복  
 3874 보좌 신부 절태현  
 사도 회장 이복석

1. 꾸리아: 10일<일> 오후 2시(강당)
  2. 영세일: 30일<토> 저녁 8시 준비 잘하세요
  3. 선봉기 7대(20만원) 기증: 감사합니다
  4. 의복을 단정히 합시다(미사때)
  5. 견진 및 성모의 밤 사진 찾아가세요(사무실)
  6. 교무금은 월별로 납부 바랍니다
  7. 여자 쟈 모임: 1주일 연기(6월 14일 오후 2시)
  8. 학생회 남자 부회장 선출: 최정석(메트로)
  9. 4지구 체육대회: 10일<일> 오전 8시 해성학교에서 학생여러분 꼭 참석 바랍니다
- 지난주 불헌금: 268,228원

**(서학동)**

전화 ③2276 주임 신부 오현택  
 사도 회장 황인구

1. 선교주일: 레지오 마리에 간부회
  2. 구역장 및 반장회: 10시미사 후
  3. 수요기도회: 13일 오후 8시30분
- 지난주 불헌금: 80,750원

**(숲정리)**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이강노

1. 성모회 월례회: 다음주
  2. 누깁다 부녀회장 선종으로 후일에 (이경희)씨께서 부녀회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3. 성신강림 주일에 42명의 신자가 탄생하였습니다. 축하합니다
  4. 금주 신축기금 성금: 이용신(10만원) 감사합니다
- 지난주 불헌금: 158,304원

**(노송동)**

전화 ③7032 주임 신부 김정원  
 사도 회장 김성복

1. 성모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회원 여러분의 빠짐없는 참여를 바랍니다
  2. 신우회 월례회: 오늘 저녁미사 후 회원들의 빠짐없는 참여를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중·고등학생회 체육대회에 협조해 주신 단체 및 개인에게 감사드립니다
  4. 축! 흡인미사: 6월 10일 오후 2시 신랑-박희석, 신부-박영주(안나)
- 지난주 불헌금: 92,970원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서석기  
 보좌 신부 전종복  
 사도 회장 유제상

1. 사도회 월례회: 공식미사 후
  2. 진복회 감사헌금: 23,600원 업익봉 형제-이달 제병·미사주 불헌
  3. 예비자 교리: 주일 오전 11시·수요일 저녁 8시
  4. 금주 공소미사: 내동리-저녁 8시, 차주-미산리 공소
  5. 본당신부님 영명축일: 6월 29일 신부님 건강을 위하여 많은 영적 예물 준비합니다
- 지난주 불헌금: 22,955원 교무금: 121,600원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병엽  
 보좌 신부 김기수  
 사도 회장 유석종

1. 축! 견진성사: 금일 공식미사시(김주교님 주례)
  2. 자모회: 공식미사 후
  3. 장우회: 저녁미사 후
  4. 성가정회: 11일<월> 오후 2시
  5. 미사시간 변경: 다음주부터 아동미사-오전 8시30분, 중·고생-토요일 오후 5시30분 일반 특전미사 결합
  6. 성탄 영세자: 수녀님께 등록 요망
  7. 성신강림시 영세자 합영 금일 저녁미사 후 전원 참석 요망
  8. 앰푸 마이크 회사하신분 이현재·최덕순(각 10,000원), 김병오·박도식·법창규·임마리아(각5,000원), 이씨·김씨(각3,000원) 은씨(1,000원)
- 지난주 불헌금: 222,520원

**(복자)**

전화 ③5238 주임 신부 김종택  
 보좌 신부 박성팔  
 사도 회장 조성호

1. 성우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김성원 형제례)
  2. 제 6차 공동체 묵상회: 16·17일 아직 안반으신분 꼭 받으시다
  3. 주일학교 도서실에 책 기증해 주신분 감사합니다 계속 접수하고 있습니다
  4. 학생회 체육대회: 오늘 해성학교에서
  5. 예비자 교리: 매주일 공식미사 후-히메레사 지도 매주(화) 저녁미사 후-박신부님 지도 예비자 교리에 적극 안내합니다
  6. 미사애 가톨릭 성가집·공동체 성가집·성가책 지참 하세요
- 지난주 불헌금: 292,155원

**(파티마)**

전화 ③0915 주임신부 문정현  
 사도회장 채수현

1. 사도회: 금일 저녁미사 후
  2. 구역미사: 16일-호자2가, 23일-에그란
  3. 본당 자체교육: 15일<금> 저녁 8시, 22일<금> 저녁 8시, 29일<금> 저녁 8시
  4. 견진발오실 분: 매주<금> 실시하는 자체교육에 참석 하세요
- ※ 생각해 봅시다 요즘 우리 본당에서는 교우여러분들 을 위한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우분들의 참여가 극히 소수입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사정으로서 시간을 낼 수 없다고 합니다. 바로 이 바쁜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의 신앙을 튼튼하게 합시다.
- 지난주 불헌금: 74,755원